

설명자료

배포일시	2021. 2. 28.(일) 17: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담당자	과장 사무관	윤기 이일용	전화번호 031-8025-5020

수도권 내일 많은 비, 저녁부터 눈 주의

- 수도권 30~80mm(많은 곳 경기동부 100mm) 많은 비
 - 3월 1일 낮에 다소 강한 비(천둥·번개, 돌풍 동반 주의)
- 저녁부터 경기북부·동부 3~8cm 많은 눈 주의
 - 1일 저녁~ 2일 새벽 수도권 비→눈 강수형태 변화, 빙판길 주의



[3월 1일 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 수도권기상청(청장 김성균)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월 1일부터~2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많은 비(경기동부 최대 100mm)가 내리겠으며, 경기북부와 경기동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3~8cm)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최근 수도권에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 이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내리는 비나 눈으로 인해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압계 전망]

- 수도권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이 1일 오후에 서해상, 저녁~밤에 중부지방을 지나 2일 새벽 동쪽지방을 경유하여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 1일 새벽~오후에는 저기압의 오른쪽에서 발달한 따뜻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고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1일 저녁에는 저기압이 동쪽지방으로 이동하며 북쪽으로부터 찬공기가 강하게 유입됨에 따라 기온이 점차 떨어져, 경기북부와 경기동부는 저녁부터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차차 비와 눈이 섞여 내리거나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강수 전망]

- 3월 1일 새벽에는 수도권에 비가 시작되어 저녁에는 차차 눈으로 바뀌어 2일 새벽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 특히, 1일 낮에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며, 수도권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고,
 - 1일 낮에 강한 강수를 동반한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일 저녁~2일 새벽 사이 경기도의 북쪽과 동쪽에는 최대 8cm의 눈이 예상되어 대설특보 발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예상 강수량(3월 1일~2일 새벽) >

- 수도권: 30~80mm (많은 곳 경기북부 100mm 내외)
- 서해5도: 10~40mm

< 예상 적설(3월 1일 저녁~2일 새벽) >

- 경기북부, 경기동부: 3~8cm

- 이번 기간 동안, 수도권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천둥·번개와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며, 경기북·동부에는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고 눈이 비교적 무거운 특징이 있어 축사 및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그 밖의 수도권지역은 1일 저녁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녹거나 조금 쌓인 가운데,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노면에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등, 빙판길로 인해 출근길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강풍/풍랑 전망]

- (강풍) 서쪽으로부터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3월 1일) 오후부터 모레(2일) 오전까지 인천·경기서해안에도 바람이 20~35km/h(6~10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15~30km/h(4~8m/s)로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하는 한편,

- (풍랑) 서해중부먼바다는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